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 확보 정조준

진안군, 인구활력추진단 회의서 투자계획(안) 공유·방안 논의... 최우수 등급 확보 총력

진안군은 지난 11일 군청 강당에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평가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등 37명이 참석해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군이 수립 중인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의 주요 사업 방향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투자계획(안)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6개 전략, 2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사업 간 연계 방안과 부서별 역할을 논의하며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진안군은 지난 11일 군청 강당에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재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활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진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실행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 4개 등급으로 차등 배분되며, 진안군은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12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작

민선 9기 공약 이행... 남원의료원과 협업해 전문의 진료 개시

장수군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일부터 장수군보건의원 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청소년과 개설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백 해소'와 '출중한 복지·교육으로 만드는 행복한 장수'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그동안 장수군은 소아청소년과 공공보건 의사 부족 종료 이후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관내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보호자들이 자녀 진료를 위해 인근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남원의료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주 1회 정기적으로 파견받아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했다.

진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수군보건의원내에서

운영되며, 일반 외래진료를 비롯해 △성장·발달 상담 △영유아 건강관리 △소아 만성질환 상담 △예방접종 상담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군은 7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도 운영하여 일반 진료와 건강검진, 성장 발달 관리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번 개설을 통해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아동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장수군은 향후 고흥사람기부제 기금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의료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아동 의료지원 체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북도민체전실무추진단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12일 군청 강당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열린 회의의 이후 각 실과 및 유관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주무담당, 부읍·면장과 유관기관인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진안교육지원청, 진안군체육회, 진안군장애인체육회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분야별 보고에서는 △개·폐회식 및 환영리셉션 준비계획 △교통·주차 및 셔틀버스 운영대책 △숙박·음식점 위생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등 주요 세부 실행계획이 공유됐다.

특히 개회식 당일 열람체육공원, 읍시가지, 마이산북부 주차장 등 거점별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계획과 사이클·마라톤·물러 등 도로경기 구간 교통통제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기관별 역할을 재확인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부 보완계획을 마련해 단계별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안성면 두문마을, 마을 만들기 분야 '최우수상'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서 수상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마을 공동체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무주군은 안성면 두문마을이 지난 10일 전북도청 강연장에서 열린 '제1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마을 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 자율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 발전 우수사례



들 발굴·공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시·군을 대표하는 8개 우수마을이 참가해 마을 만

들기와 농촌 만들기, 농촌환경개선 분야에서 경쟁을 펼쳤다.

두문마을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무주안성낙화놀이'를 성공적으로 보존·계승하고 이를 지역 관광자원과 주민 소득 창출로 연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활용한 마을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온 점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무주=손홍기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사과 농가 찾아 생육상태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11일 사과 농가와 사과시험장을 방문해 사과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스마트팜, 상품종 시험포, 다목적 햇빛차단망 등 미래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과 주요 생육시기를 맞아 장수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점검하고, 스마트농업과 상품종 육성 등 미래 과수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훈식 군수는 먼저 사과시험장을 찾아 미래형 다중 스마트팜과 상품종 재배 실증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해 사과 비대상태와 작과 상황 등 생육 전반을 살피고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상품종 추진지 현장연구 과제



가 추진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차철, 만홍, 골든볼 등 다양한 상품종 시험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장수지역 적응성과 시장성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여름철 온기 과실 품질 향상 효과를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배기술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마이산 여행자센터→마이키즈카페로 새 단장

진안군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마이산 여행자센터'가 어린이 중심의 놀이 공간인 '마이키즈카페'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 단장을 거쳐 운영을 시작했다.

새단장된 진안관광협회의회는 '진안을 플레이하다! 마이키즈 놀이터!'라는 슬로건 아래, 가족 단위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

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마이키즈카페는 진안군의 친근한 대표 캐릭터 '빠팡이'를 전면에 내세웠다. 카페 내부 곳곳에 빠팡이 캐릭터 랩핑 작업을 진행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별도의 빠팡이 팝업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한다.

현재 '실내 놀이시설'과 '체험형 콘텐츠'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보드게임 공간'도 막바지 준비를 거쳐 6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동 편의성과 혜택도 눈길을 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진안 관내 거주 방문객은 '무료'입장이며, 관외 방문객은 5,000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면 이를 '진안 지역상품권'으로 100% 전액 교환 지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 성황리 개최

자전거 마라톤으로 불리는 2026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지난 13일 무주군 일원에서 열렸다.

그란폰도는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유럽 등지에서 열리며, 무주 그란폰도는 국내 최장의 길거리 경주다.

전북특별자치도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는 선수 1,500여명이 참가했다.

그란폰도 선수 900여명은 무주군 예천리에서 출발해 출발해 부남면~안성면~적상면~설천면~무풍면을 거쳐 무주국민체육센터로 돌아오는 124.5km 구간을 달렸다.

메디오폰도 선수 600여명은 적상면 하조사거리에서 그란폰도 참가자와 분리돼 적상면 양수발전소를 지나 무주국민체육센터까지 총 70.5km 구간에서 페달을 밟았다. /무주=손홍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